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2년 8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듯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2022년 5~6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37,772,040

구 분	2022년 5월		2022년 6월	
자 동 이 체	667명	13,369,390	772명	14,789,700
지 로	39명	632,200	101명	984,830
CMS이 체	128명	1,576,320	181명	2,249,600
보문동성당		613,000		
가재울성당		3,557,000		
합 계	834명	19,747,910	1,054명	18,024,13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4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1,0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600,000	제전비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1,0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0,2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5,835,35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1,686,690	출판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37,772,04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2. 07 / 제64호

펴낸날 2022. 07.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균형 맞추기

물리학에서 '삼투현상'이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압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은 실생활 안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으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소금이 있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도가 다른 두 물질은 그렇게 서로에게 관여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헌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좋은 관계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내어주고 받는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하나가 됩니다.

현대의 국제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더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시대가 세계의 균형을 잡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그 불편함 때문에 불안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부유한 나라에서 힘없는 나라들을 돕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도움을 받는 나라 안에서의 불균형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천장의 모빌 장난감을 봅니다. 위태위태한 모빌 장난감 가운데 하나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우리들에게 조금 더 세심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많은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불균형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커집니다. 서로 다르지만 닮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삼투현상이 나타나 서로 비슷해지듯이,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서로의 것을 내어주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닮아 있는 우리의 이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그리고 종교가 다른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세례자요한** 신부

공동체 소식

사랑의 집 소식*

거주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쉼터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곳에서의 코로나 상황은 일반 가정보다 몇 배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주자들은 다문화모자가정으로 살아가기 힘든 순간들이 많지만 용기 내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안에 이런 시간들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경제적인 이유로 평일에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4시반 아이들은 주로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돌보아줄 친척이나 이웃이 없어 24시간 보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겨우 생활비를 벌고, 일도 야간근로이거나 새벽 일찍 나가거나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네 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은 야간연장반교사(PM2:00–10:00), 24시간교사(PM10:00–아침), 그리고 보육도우미(다문화여성)가 있습니다. 집에 가는 어린이들과 달리 불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남겨지는 이 어린이들을 선생님들이 정서적인 안정감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더욱 많이 신경써서 돌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야간보육도우미(다문화여성)를 채용 못 할 위기가 있었으나, 좋으신 분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어린이들이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① 가재울 성당 후원자

김가희 김규영 김기천 김두례 김미남 김선주 김성진 김성철 김성희 김소영 김승녀 김영삼 김영훈 김영희 김용숙 김원효 김은숙 김은주 김재호 김종관 김종신 김지원 김지훈 김진성 김충숙 김현도 김현주 김형주 김혜주 나경희 남경숙 남궁란 남서호 남연희 노옥희 도지숙 박병걸 박정경 박현주 서현주 서혜정 손선숙 송영자 송해리 안선민 양혜진 우승민 유경식 유만식 유옥례 유제구 유지현 윤기옥 이강연 이금려 이기철 이다혜 이민자 이연숙 이영훈 이재경 이전환 이주하 이창걸 임승진 임지영 임현숙 장정옥 장진성 정애숙 정유정 정은아 정향래 정혜경 조성영 조영자 진정순 천경자 최수웅 최자영 허금선 허시영 홍영화 황정순 황화정

② 개인 신청 후원자

이원혜 율리엣따

체념 증후군의 기록(Life Overtakes Me) review*

'잠자는 숲 속의 공주'처럼 다리아(여, 7세)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고 작고 아름다운 아이의 코에는 피딩줄이 붙어 있다.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이 가족의 둘째 딸은 체념 증후군(Resignation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정신적 외상을 입은 스웨덴 거주 난민 아동 수백 명이 체념 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다. 세상에서 물러나 혼수상태와 비슷한 상태에 빠지는데 때론 그 기간이 수년이 되기도 한다."고 이 다큐는 이야기한다.

부모가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을 피해 스웨덴에 도착했고, 그들은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신청자로 있는 동안 아이는 스웨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고, 아이는 난민 인정 결과를 듣고부터 음식을 먹지 않고 무반응으로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 안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버렸다. 자신의 탓이 아닌 외부의 폭력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난민들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난민 신청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방당할 지도 모르는 상황 안에서 마음조리며 살아간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아이들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 안에서 점점 아파간다.

'resign'(체념하다)는 동사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로 사임하는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는 외부의 압박과 절망이라는 폭력 아래에서 '체념'으로 나아가게 된다.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피해 새로운 땅을 밟았지만, 추방이라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저항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웃음과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당한 아이들의 희망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서 3명의 어린이들이 나온다. 다리아는 1년이 넘어서 가족이 난민인정을 받은 후 몇 개월 뒤에 깨어났다.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깨운 것은 가족의 안정감이었고, 대화와 접촉을 통한 가족의 입맞춤이었다. 다른 2명의 아이들의 가족은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속할 수 없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면, 항소하고 또 오랜 시간을 어렵게 지내야 한다. 그 긴 시간 동안 불안과 공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많은 난민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는 힘없고 약한 손님들을 환대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다.